

‘경기 대전 테크노파크’로 변경

200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확정

(재)경기 대전 테크노파크 이사회는 지난 28일 대전대 국제세미나실에서 이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 (재)경기북부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북부’라는 명칭을 삭제한 (재)경기 대전 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경기도경제농정국장, 대전대 재원출연 기관(종단)이사 등 이사 3명을 추가해 선임할 것을 확정했다. 또한 당초 단지 조성 설계용역 절차 방식결정 3개안(제1안 기본계획용역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안, 제2안 현상공모안, 제3안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후 실

시설계 용역안)으로 안전 상정되었으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절차는 재원 최대 출연기관인 대전대 재단측의 책임하에 수행하기로 수정가결 했다.

사무국장 채용 건은 경기도에서 추천한 박종선 前과전부시장을 선임하되 직책은 행정기획본부장으로 결정했고, 예산변경의 건은 행정기획본부장 채용으로 인한 급여지출에 대한 추가예산을 예비비에서 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기 테크노파크 원장은 외부인사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사관리규정 조항을 신설할 것을 확정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재)경기 대전테크노파크 이사회는 지난 28일 대전대 국제세미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친환경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총 5억원 투입 계획



친환경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티저어 사례.

기존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만으로 조성된 주차장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환경 공영주차장을 소흘을 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한다.

친환경 주차장은 주차면의 블록과 블록사이엔 잔디를 심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땅의 투수성(透水性)을 되살릴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포천시는 이를 위해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9백33평에 1백50면의 친환경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주차장 주위에 막구조형 텐트(일명 파고라)와 벤치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이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로 하여금 영농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포천시는 출산일 전후 90일 기간 중, 최대 30일까지 하루 24,000원씩, 총액 72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금년도에 1,0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시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이나 조산, 사산한 경우에도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전후의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명부 및 임신부등록대장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10일까지 관내 20만9천824필지 대상

포천시는 5월 10일까지 관내 20만9천824필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지번별 m²당 가격으로,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의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포천시청 민원실과 지가상환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평균’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포천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열람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민원실과 지가상환실 (☎530-8156~8)로 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과세를 받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시작할 임대업씨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과세를 받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거나 수수료를 주어야 하고, 추계과세를 받거나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과세를 받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추계로
- 계산하면 차이가 없으나,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업의 소득세 차이 비교

- 임대기간 : 2003.1.1~12.31
- 월세수입 : 5,000,000원
- 월 관리비수입 : 1,000,000원
- 임대보증금 : 5억
- 상가취득가액(간불분) : 2억원
- 건물 기준지가 : 5천만원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4.2%
- 가족상황 : 처, 자녀2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 2천5백만원
- 인건비 등 필요경비 합계액 : 3천만원(주요경비 1,500만원)
- 기중경비율 : 23.4%
- 단순경비율 : 33.5%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93,000,000원
- 임대료수입 : 5,000,000 × 12(개월) = 60,000,000원
- 관리비수입 : 1,000,000 × 12(개월) = 12,000,000원
- 간주임대료 : 5억(임대보증금) × 4.2%(정기예금이자율) = 21,000,000원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93,000,000 - 15,000,000 - (93,000,000 × 23.4%) = 56,238,000원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56,238,000 - 4,600,000 = 51,638,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51,638,000 × 27% - 4,500,000 = 9,442,260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무기장가산세 = 9,442,260 + 9,442,260 × 20% = 11,330,712원

○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72,000,000원

○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 추계결정의 경우와 같음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건물취득가액)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이자 = (5억 - 2억) × 4.2% - 25,000,000원 = -12,400,000 ⇒ 0으로 간주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인건비 등 필요경비 = 72,000,000 - 30,000,000 = 42,000,000원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42,000,000 - 4,600,000 = 37,40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37,400,000 × 18% - 900,000 = 5,832,000원

○ 추계와 기장의 소득세액 비교

▷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세금이 절약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5,498,712원)

▷ 2002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므로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하며, 수입금액이 6,000만원이 안되더라도 기장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⑤ 일신석재 포천석산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생산량 자랑



소장 김명렬

“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위해 안전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작업공정이 까다롭고 위험요소가 다양으로 산채되어 있는 일신석재 포천석산 사무실 입구에 쓰여진 문구다.

일신석재 포천석산(영종면 거사리 산 56-1 소장 : 김명렬)은 작업환경과 작업공정개선, 정기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실시로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 없이 무재해목표를 달성하며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범업체다.

으로 인류에 더 좋은 삶을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업체를 추구하고 있다.

일신석재는 국내 최고 토탈석재가공업체 담계 경기도 이천에 7만여평의 대지위에 건평규모만 약 6천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천공장에서는 해외 및 국내 각지에서 들어온 원석을 최첨단 생산설비를 통해 정교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관재와 석재생활용품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여대의 합석기와 대형톱, FC연마기, 대형자동제트버너기 등 국내수준급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관재가공기계 5대를 구입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보급한다는 보람에 전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전국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8개의 영업소에서는 국내 최대의 원석보유량과 해외 유명산지의 원석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계각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화강암과 대리석 등의 건축용자재를 다량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언제든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고객을 향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신석재 포천석산을 선두지휘하고 있는 김 소장은 “전 임직원들이 안전을 생활화하면서 더불어

안전의식 고취로 산업재해 예방

미래 도시건물의 신감각주의 지향

이는 일신석재 포천석산의 무재해운동 추진을 통해 매주 2회씩에 걸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 고취에 대한 김 소장의 안전교육이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국내 최대의 생산량과 매장량 그리고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포천석산은 연간 120만 사이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석산임이 자명하다.

약 4만여평의 부지에서 생산되는 포천석은 입자와 색상이 균일하여 각종 건축자재와 석재생활용품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일신석재 포천석산은 지난 1980년 개발을 시작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88년부터 서광이 보이면서 90년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되었다.

일신석재는 본사와 포천석산을 중심으로 8개의 영업소와 2곳의 해외지사를 갖추고 석재분야 선두주자로 국내 석재의 자존심을 지키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포천석산은 36명의 특급 기술진들과 최첨단 가공기계와 독특한 기술력을 주 무기로 더좋은 자원

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과 경쟁력에서 앞서기 위해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한다”며 “이러한 직원들과의 끈끈한 정과 노력이 사내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일신석재 포천석산과 연관된 분야의 대외적인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등으로 빛어지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며 3년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계를 이용해 분진을 70%정도 줄이는 데 성공해 친환경적인 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일신석재는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 된 시스템으로 예술의 전당, 엑스포 한빛탑, 국회 도서관 등 국내 유명 건축물을 정밀 시공하면서 자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웅장한 건축미에 섬세한 예술미까지 도시 건물의 신감각주의를 지향하는 일신석재는 더욱 진보된 건축물 창조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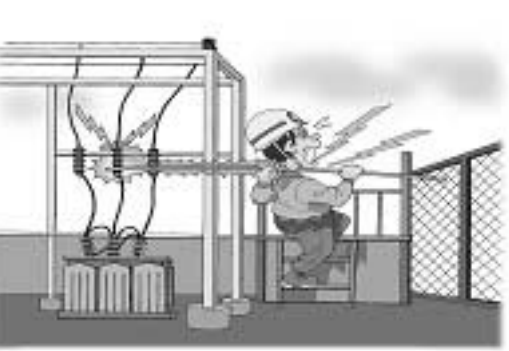
정병남 기자 jpk61@paran.com
문의: 031)531-8860~2



작업환경과 작업공정개선,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실시로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 없이 무재해목표를 달성하며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범업체인 일신석재 포천석산.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관파이프가 수변전 설비에 접촉되어 감전



재해발생 상황도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감시인 미배치 및 접근한계거리 미유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했다.

둘째, 작업방법의 불량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 자재는 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당해현장의 경우 지상 7층 옥상에 수변전 전선 설비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강관 파이프를 반입하여 운반 작업을 실시한 것이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고압 활선 근접작업시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통작범위와 작업용 공구, 자재 등이 충전 전로부터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배치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감전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작업방법의 개선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자재는 안전한 장소의 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옥상에서 인테리어 작업장으로 강관 파이프를 운반하던 중 강관파이프가 옥상에 있는 수변전 설비에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특별고압 활선 근접작업시 감전방지 조치 미실시로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22.9KV의 경우 30cm이상)를 유지하도록